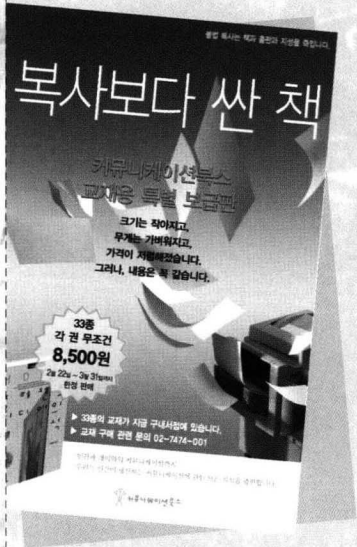


interview

보급판 내놓은 커뮤니케이션북스 전정욱 팀장

거품 났던 저렴한 교재, 교재 출판의 새로운 대안



최근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선 신문방송학 교재 34종을 보급판으로 만들어 화제가 됐다.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전정욱 팀장은 “학생들이 불법복사를 하지 않고도 정당하게 책을 사서 공부하도록 저렴한 교재용 보급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책 가격이 1만 5천 원만 넘으면 복사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사실 보급판을 통해 불법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 본 일입니다.”

이번에 출간한 보급판은 새로 편집을 한 게 아니다.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서 크기와 무게를 줄였다. 정판보다 85퍼센트로 글자와 사이즈를 축소했고, 책이 작아질 경우 책장이 잘 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얇은 종이를 택했다. 정판이 아니다보니 약간의 ‘문제’가 보이기도 했다. 사이즈를 축소했기 때문에 그림이 정판보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판과 비교할 때 4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문제들이 정판과 보급판의 존재 의의를 말해 주는 것이죠.”

사실 보급판을 출간하기 전 출판사측은 현장의 호응을 반신반의했다. 국내에선 보급판이란 개념이 아직 낯선 개념이라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80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보급판 구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판과 내용, 편집이 똑같기 때문에 교재 구입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가격 부담을 줄인 보급판을 외면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다. 전 팀장은 특히 학생들은 “작고 가볍고 싸다”는 점을 장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커뮤니케이션북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매 학기초 교재로 채택되는 책들에 한해 보급판 종수를 조금씩 늘려 볼 예정이다.

“보급판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회사 수익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보급판으로 학생들의 불법복사 인식이 바뀌고 서점 이용률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저자, 출판사, 유통업계를 포함한 지식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팀장은 “출판제도 보급판 모델에 관심이 많다”며 “벌지 않아 보급판이 출판계의 당연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사진제공 : 커뮤니케이션북스)